

이슈브리프 824호
(2026. 3.17)

이란 전쟁 발 경제안보 위험 전이 검토 중국발 리스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824호

홍건식 hks21c@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 공급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국제 유가는 30% 이상 급등하고 \$100/배럴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하루 세계 공급의 1/5이 통과하는 이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운송비용 상승·거시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나 비축유·재생에너지 전환·러시아 수입 확대 등으로 상대적 취약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중국 경제의 물류비 상승, 메탄올·석유화학 소재 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 내수 확대와 에너지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안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 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에너지 민족주의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이란 전쟁에 대한 직접적 위험과 중국발 공급망 차질이라는 간접적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원자재에 의존하는 수출주도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란 전쟁이 중국의 에너지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의 반도체·제조업 생산 차질, 원가 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한중 고위급 소통 강화, 공급망 다변화, 재생·원자력·LNG 등으로 에너지 믹스 확대가 시급하며,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미국, 이란, 중국, 전쟁, 경제안보, 에너지

2026년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은 단순한 중동 지역 갈등을 넘어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심대한 구조적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였다. 이는 세계 원유 공급망의 핵심 동맥을 차단하는 행위로, 전쟁 발발 직후 유조선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에너지 가격 변동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운송 비용 상승, 그리고 장기적인 거시경제 불안정을 유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경과와 이란의 강경 대응

전쟁 발발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개전한 지 3주가 경과하였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근본적 입장 차이로 인해 출구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전 초기 이란 혁명수비대는 “역내 군사·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새로 선출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공식 선언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하르그(Kharg)섬 공습과 이란의 이스라엘과 걸프국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 지속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출렁였다. 이는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 측 대응 또한 강경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란의 기뢰 매설 문제에 대해 “이란은 기뢰를 즉각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례 없는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더불어 현재 시각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

중국·영국·프랑스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어, 이란 전쟁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 국면은 전쟁의 단기 종결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결국 중동지역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재개가 지연되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무역의 핵심 요충지로서, 그 폐쇄 여부가 글로벌 경제의 명암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다. 3월 6일(금요일) 현재 약 325척의 벌크선과 146척의 유조선이 중동 걸프만에 간헐 있었다.¹⁾ 걸프만 지역은 하루 평균 1,500만~1,6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며, 이는 전체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또한 페르시아만은 세계 비료·석유화학 원료의 주요 생산지이므로, 항만 폐쇄가 장기화하면 운송 차질은 필연적이며, 유가 상승과 운임 상승을 넘어 거시경제적 피해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개시 직후 발빠른 대응력을 입증하였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하여 이란 정세와 중동 안보 환경을 정밀 평가하고, 현지 교민 안전을 선제 점검하였다. 후속 조치로 중동 체류 국민의 귀국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단기적 위기관리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 경제 안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입증한다.

1)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duration-of-closure-of-hormuz-to-dictate-shipping-rates/>

중국,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 움직임 강화할 듯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축유 여력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해상 원유 의존도를 꾸준히 낮춘 결과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 역시 신속하게 움직였다. 3월 5일 베이징은 정제 제품 공급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형 정유사들에게 디젤·휘발유 수출 중단을 지시하였으며, 지장석유화학 및 푸젠정유화학공사 등 주요 시설은 일시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중국은 완전한 면역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류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일부 기업은 환적 허브를 도하 등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 메탄올 공급난이 발생하여 합성섬유, 화학물질, 플라스틱, 고무 등 소재 가격이 상승하고, 석유 기반 제품 전반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생존 전략적 과제이다.

더불어 지난 12일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11개 안건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전인대는 내수 부진을 중국 경제의 핵심 구조적 문제로 지목하며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본점으로 삼아 민생 개선, 소비 촉진, 물적·인적 투자 결합을 추진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당국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걸프 지역 불안정은 중국 전략 기획자들에게 주요 해상 요충지와 무역 흐름 확보를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동안 제한적 해외 군사 배치(지부티, 아덴만 순환 배치)에 그쳤던 중국이,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군사력 투사를 적극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 대비해야

이란 전쟁은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중국을 경유한 간접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 위기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으로서, 중국발 경제 충격은 곧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중간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형적 공급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 통과 이후 중국이 호르무즈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자국 우선 배분할 경우, 한국으로의 자원 공급이 감소하여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에 직접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중국발 중간재 공급 차질은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에너지 부족을 이유로 자국 내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경우, 한국의 핵심 산업 공급망은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생산 일정 차질을 피하기 어렵고, 중국 에너지 비용 상승은 한국 기업의 생산 원가 증가로 전가되어 민생 부담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산업 경쟁력 재평가라는 구조적 도전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란 문제에 대한 직접 대응과 중국발 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확대 정신을 바탕으로, 전쟁이 양국 경제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보호와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측하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정부 주도 테스크포스 신설, 중국 경제 동향 실시간 분석과 공급망 다변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중동 의존도를 축소하고 LNG,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다각적 에너지 믹스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종합 대응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사건이다.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이란발 위기와 중국발 위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 확보, 국내 경제 안정화라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전쟁은 한국이 국제 정세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기업·학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능동적 전략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